

[보도자료] “나이스 원, 쏘니!” 손흥민의 라스트 댄스! ‘2025 쿠팡 플레이 시리즈’ 성료

2025. 8. 4.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2경기 종료 후, 헝가레를 받는 손흥민

- 박서준 시축부터 2NE1 공연까지 팬들과 함께 모두가 응원한 영원한 캡틴, 손흥민과 함께한 특별한 밤
- 손흥민, “너무나 행복한 경기를 했다. 축구 팬, 동료들, 선수들 덕에 잊지 못할 하루 보내”

2025. 08. 04. -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가 8월 3일(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두번째 경기를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토트넘 홋스퍼(이하 토트넘)와 뉴캐슬 유나이티드(이하 뉴캐슬)의 맞대결은 손흥민의 국내 마지막 토트넘 출전이라는 상징적인 순간이 더해지며, 팬들의 뜨거운 환호와 함께 깊은 감동을 자아냈다.



토트넘 선수단의 '가드 오브 아너'를 받는 손흥민



양팀 선수들의 '가드 오브 아너' 속 교체되는 손흥민



관중들의 기립박수 속에 그라운드를 떠나는 손흥민

이날 경기는 손흥민이 국내 팬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뒀 뜻깊은 자리였다. 그는 전반부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63분간 그라운드를 누볐고, 교체 순간에는 동료 선수는 물론 뉴캐슬 선수들과도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경기를 마무리했다. 손흥민이 그라운드를 떠날 때는 양팀 선수들이 도열해 '가드 오브 아너'를 펼치며 존경의 박수를 보냈다. 이후 손흥민은 그의 토트넘 시절을 모두 함께한 절친 벤 데이비스에게 주장 완장을 넘겼고, 두 선수는 마지막 포옹을 하며 인사를 나눴다. 경기장을 찾은 6만여 팬들과 선수들의 뜨거운 기립박수 속에 벤치로 돌아간 손흥민은 한동안 감정을 추스리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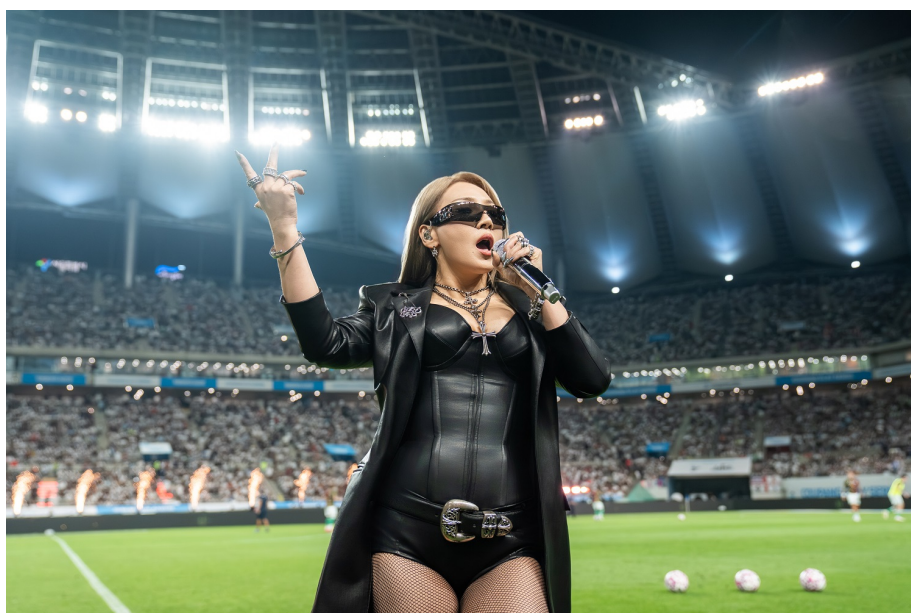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2경기 프리뷰쇼 특별 게스트 이수지와 손흥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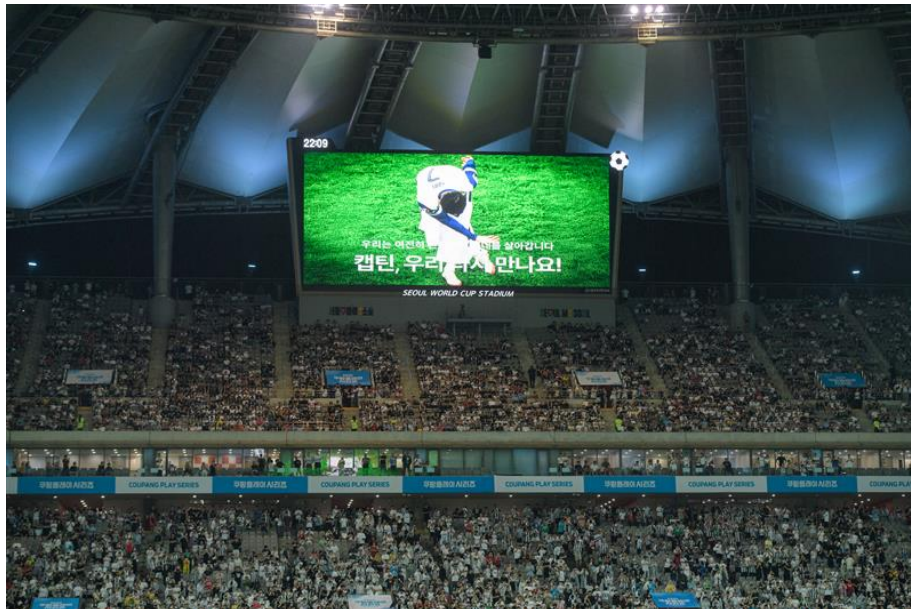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2경기 시축자로 나선 배우 박서준, 손흥민과 악수를 하며 우정을 나눴다.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2경기 하프타임 쇼 아티스트 투애니원(2NE1)



쿠팡플레이는 경기 전부터 종료 이후까지 손흥민을 위한 헌정 무대를 준비하며, 그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프리뷰쇼에는 '트로피의 여신' 이수지가 등장해 "10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다. 앞으로 행복축구, 행복축구 하셨으면 좋겠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고, 시축에는 절친이자 배우 박서준이 나서 손흥민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다. 하프타임에는 손흥민이 오랜 팬으로 알려진 그룹 2NE1(투애니원)이 등장해 'FIRE', 'I DON'T CARE', '내가 제일 잘 나가' 등 레전드 히트곡을 연이어 선보이며 그를 위한 특별한 무대를 완성했다.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2경기 경기 직후, 공개된 손흥민 헌정 영상

팬들이 만들어낸 헌정 퍼포먼스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경기 시작 후 손흥민의 등번호를 상징하는 7분과 77분, ‘트럼펫 가이’의 연주에 맞춰 관중들은 ‘나이스 원 쏘니(Nice one, Sonny)’ 응원가를 합창하며 그의 ‘라스트 댄스’를 뜨겁게 응원했다. 현장에는 영국에서 직접 방한한 토트넘 서포터들도 자리해 팀 응원가를 목청껏 부르며 손흥민의 마지막 무대를 함께했고, 국적과 언어를 넘어선 응원과 감정이 경기장을 하나로 만들었다. 경기 직후에는 전광판과 중계 화면을 통해 손흥민의 토트넘 10년 여정을 담은 헌정 영상이 송출됐고, 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그라운드를 응원으로 가득 채웠다.



손흥민의 ‘찰칵 세리머니’를 선보이는 선제골의 주인공 브레넌 존슨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2경기 종료 후, 함께 사진을 찍은 뉴캐슬의 박승수, 토트넘의 양민혁

한편, 이 날 경기는 1:1 무승부로 마무리됐다. 전반전에는 양 팀의 빠른 공방 속에 이른 시간부터 골이 터지며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토트넘의 브레넌 존슨이 선제골을 터뜨리며 리드를 잡았다. 특히 득점 직후 브레넌 존슨은 손흥민을 위한 헌정 세리머니를 선보이며 경기장 전체를 감동의 분위기로 물들였다. 이후 뉴캐슬의 반격이 이어졌고, 37분 뉴캐슬 하비 반스가 동점골을 기록하며 전반전은 종료됐다. 후반전에는 뉴캐슬의 박승수와 토트넘의 양민혁이 그라운드에 올라 차세대 대한민국 프리미어리거들의 10년을 예고하는 듯한 인상적인 플레이를 선보였다.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2경기 전경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는 프리미어리그를 국내 팬들과 더 가까이 연결했다. 토트넘 홋스퍼, 뉴캐슬 유나이티드, 팀 K리그가 참여한 두 차례의 경기와 함께, 입국 장면 생중계, 프리매치 인터뷰, 오픈 트레이닝, 뉴캐슬 선수들이 출연한 ‘신도림 조기축구회’, 토트넘 선수들이 출연한 ‘직장인들’ 등 일주일간 팬들은 경기장 안팎에서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쿠팡플레이와 프리미어리그의 협력은 다가오는 2025-26 시즌의 생중계로 이어진다. 이번 시즌부터 쿠팡플레이 ‘스포츠 패스’를 통해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무제한 시청할 수 있으며, 4K를 포함한 고화질 스트리밍과 함께 하이라이트, 분석 영상, 인터뷰 등 자체 제작 콘텐츠도 제공된다. 시청 환경과 콘텐츠 구성 모두를 강화하며, 쿠팡플레이는 프리미어리그 팬들에게 보다 깊이 있는 관람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